

에이즈양성 진단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이해와 관심 어린 태도는 단지 헛된 안심을 심어주는 것 이상을 요구한다. 에이즈양성진단은 한 개인의 자아의식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므로 환자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환자에게 위중한 질병의 진단결과를 알려주는 것은 어렵고도 중대한 과업이다. 그 중에서도 에이즈는 섹스와 죽음과 연관되어 특히 어려운 과업이다. 에이즈는 매춘, 동성애, 마약사용 등 사회에서 꺼리는 행동과 관련되어 더욱 그렇다. 아래의 예는 잘못된 의사-환자 의사소통 관계를 보여준다.

내가 아는 한 어떤 것도 잘 취급되어지지 않았다. 의사가 나에게 다음날 오라고 전화했을 때 말할 것이 있다고 물었고 의사는 계속 그냥 내일 오라고만 말했다. 나는 밤새동안 미칠 것 같았다. 다음날 내가 진료실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의사가 들어와서 내 앞에 섰다. 내 눈을 피하고 서류를 보면서 내가 에이즈양성이라고 말했다.

말할 필요도 없이 나의 모든 세계가 내 눈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의사는 나에게 모든 필요한 검사를 해야 한다고 말하며 다른 의사에게 진료를 받도록 의뢰하겠다고 하였다. 나에게 잔뜩 검사실 용지와 처방전을 주면서 나기버렸다. 나는 의사가 좀더 이해심과 매너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좀더 설명해 주었기를 바랐다. 나는 매우 외로웠다. 그 의사와 검사실은 나에게 절대 잊지 못할 하루를 만들어 주었다.

위의 예의 의사는 의료인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흔히 보이는 '회피'라는 형태로 환자를 대하고 있다. 이러한 '회피'는 주제를 바꾸거나 허위적인 안심을 주든지 혹은

단순히 피해버리는 형태로 나타난다. 의료인들은 암의 경우에서처럼 이런 경우 사실을 알려주지 않거나 회피의 형식으로 이러한 상황에 대응해왔다. 연구에 의하면 의사-환자간의 대화에 대한 만족감과 질병으로부터의 회복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만족감은 의사-환자간의 대화에 소비한 시간, 의료인의 태도, 제공된 정보의 양과 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많은 의료인들이 HIV양성 진단과 같은 소식을 기술적으로 알려주는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적응능력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연구에 의하면 적절하지 못한 대화를 갖은 환자는 만족스러운 대화를 갖은 환자에 비해 질병으로 인한 우울증과 불안증이 2배나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Fallowfield, Baum, and Maguire, 1986)

그러므로 의료인은 에이즈양성 진단을 전할 때는 환자의 요구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인 의료적 그리고 사회적 의무를 가지고 있다.

>> 시간

의료인이 에이즈양성진단을 전하는 데 소비한 시간은 짧게 1분에서 길게 4시간이며 평균 62분이 소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의하면 양성진단을 전하는 데 소요된 시간은 환자의 만족감과 정보의 양과 강한 상관성을 보였으며 또한 환자의 HIV에 대한 정신적 적응 정도(Mental Adjustment to HIV scale)와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 환자의 감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

연구에 의하면 의료인들의 환자의 감정에 대한 반응은 양극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아주 냉담하거나 아주 자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에이즈환자(2/3)는 의료인-환자 대화에 불만족을 표시하였고 나머지 1/3은 만족감을 표시하였다. 이런 경우 어떤 의료인들은 오직 의료적인 것에만 언급하고 환자의 감정은 피하거나 빨리 방을 떠남으로써 상황을 회피하려고 한다.

이러한 회피는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의 감정에 대응하기 위한 시간을 절약하고 환자와 지나친 동일화로 인한 직업상의 기력소모를 막을 수 있을 지 모르나 이런 식의 대응은 환자로 하여금 많은 불필요한 심리적 고통을 야기시킨다.

이해와 관심 어린 태도는 단지 헛된 안심을 심어주는 것 이상을 요구한다. 에이즈양성 진단은 한 개인의 자아 의식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므로 환자의 감정에 주의될 기울어야 한다.

>> 정보의 양과 질문에 대한 응답

많은 정보를 받은 환자는 자신들을 건강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게 되므로 만족감을 느끼고 에이즈에 좀더 잘 적응한다.

>> 향후 치료계획 언급과 사회적 지지

의료인으로부터 앞으로의 조치와 지원그룹에 대해 듣고 이러한 지원그룹에 참석한 환자들은 에이즈양성 진단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시키고 더 빨리 질병에 적응할 수 있다.

>> 효과적인 전달방법

- ① 환자의 고립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에이즈에 대해 설명할 충분한

시간을 취한다.

- ② 환자중심 접근법을 채택한다.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채혈을 하는 동안 양성진단이 나올 경우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설명하고 검사자의 가족, 가치관 등 배경에 대한 정보를 습득함으로써 어떻게 진단을 통보할 것인가를 파악한다.
- ③ 죄의식, 자책, 분노, 슬픔, 두려움 그리고 충격과 같은 강한 감정표출에 대비한다.
- ④ 적절한 비언어적 행동과 함께 확신을 주는 말을 사용한다. 환자와 눈을 마주치면서 이야기하고 환자의 비언어적 행동과 피드백을 주시한다.
- ⑤ 환자는 애정의 요구와 함께 정보의 요구를 가지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환자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를 제공하고 치료계획에 대해 언급하여야 하고 상투적인 안심을 주는 말은 삼간다.
- ⑥ 의료인 자신도 기력소모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우울증과 불안감은 낮은 면역능력기능과 유의한 상관성을 갖고 있으므로 심리적 적응은 매우 중요하다. 인간의 정신은 복잡하고 놀라운 것이며 기술적이고 애정어린 의사진단이 갖는 치료적 효과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Nancy L Roth의 Women and AIDS에서 발췌)

